

# 블랙프라이데이 끝나니 '케이-세일 데이'

(K-sale day)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아쉬움을 달래 줄 올 마지막 세일을 지역 유통가들이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10월 40%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특수를 특별히 누리 '블랙프라이데이'를 잇는 또 하나의 야심작 'K-Sale Day'를 선보인다.

광주신세계는 '100대 K-Sale Day 축하상품'과 지금까지 세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일 미참여 브랜드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광주신세계는 지난 20일부터 겨울 패션의 포인트가 될 감각적인 겨울 부츠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윈터 슈즈 페어'를 펼친다.

바바라, 탠디, 바이네르, 닥스, 가버, 씬 등 유

명 슈즈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겨울 인기 부츠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소다 앵클부츠 23만8000원, 바바라 앵클부츠 15만8000원, 롱부츠 25만원, 씬 롱부츠를 26만8000원 등에 판매한다.

또 탠디, 소다, 바이네르에서는 신년 낚은 부츠를 깨끗하고 반짝이는 부츠로 만들어 줄 부츠클리닝 서비스도 준비하는 등 이벤트도 다양하다.

또 오는 12월 6일까지는 가구, 침구, 주방용품, 식기제품 등 뛰어난 기능과 고급스런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신세계백화점의 생활용품을 초특가로 기획한 '리빙 페어'를 선보인다.

각 장르의 대표 생활용품 브랜드들이 모두 참여해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하는 이 행사에서는 가격할인은 물론 다양한 브랜드별 사은품과 상품권까지 혜택도 풍성하다.

차세르 무쇠냄비 9만9000원, 실리트 스테인리

스 냄비 4종 세트 19만8000원, 로얄달튼 접시 세트 1만원,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85만원, 다이슨 청소기 59만8000원, 바세티 침구세트 38만 4000원 등 올해 마지막 세일인 만큼 초특가로 기획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오는 12월 6일까지 17일간 'K-세일데이(K-Sale Day)'에 들어간다.

여성패션, 아동, 핸드백, 넥타이, 시계, 장갑, 구두, 스카프, 셔츠, 남성캐주얼, 주얼리, 홈패션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10~30% 세일한다.

K-세일데이 기념 노마진 상품 및 특별할인 품목을 선보인다. 또한 해외명품 브랜드도 시즌오프를 시작하며 에트로, 비비안웨스트우드 20~30%, 막스마라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8층 점령시장에서는 24일까지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와 머렐, K2, 컬럼비아, 라푸마가 참여하는 '아웃도어 다운 특집'을 진행해 이월상품을 50~60%,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소다, 닥스, 슈스파 등 인기 구두 브랜드가 참여하는 '소다 그룹전'에서 최대 60% 할인을 제공하며 같은 행사장에서 '여성 코트·패딩 상품전'을 진행한다.

롯데아울렛광주수원점도 6일까지 대한민국 쇼퍼데이(K-Sale Day)를 진행한다.

기존 상설 할인율에 20~10% 추가 할인 적용 및 각 브랜드 감상품 및 사은행사가 진행되며 저렴한 가격인 특가상품, 출시상품, 핫코너로 고객들에게 알뜰 쇼핑기회를 제공한다.

나이키 20~10%할인, 아디다스 10% 할인을 진행하며, K2, 아이더, 노스페이스 다운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네보, 보그너, 루이까스텔, 팬텀 등 인기 유명브랜드행사를 만나볼 수 있으며, 감정철을 맞아 롯데아울렛수원점에서는 75% 할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 파리테러로 유럽 경기 위축

### 美 소비 증가율 둔화 예상

### 연말 배당관련 종목 관심을

지난 주(16~20일)에는 FOMC 정책회의록에서 다수의 위원들은 10월 금리 인상에는 반대했지만 12월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되었다. 대다수 위원들이 고용시장과 물가 조건이 12월 회의까지 대체로 금리인상 요건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히면서 12월 금리인상 확률은 66%에서 68%로 상승했다.

IS의 프랑스 집단체테러 소식은 주초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악영향을 줬다. 프랑스 및 각국의 IS 무장 테러 집단에 대한 진압 소식으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유 화학 종목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였다. 또 주초에 하락폭은 주말이 다가오면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다.

주말 면세점 결과에 따른 관련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회복을 보였다. 그러나 선정된 기업조차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차익 매물의 출회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제한적이었다.

주 상승 섹터로는 정유 화학 업종 및 전자 관련종목들이 꾸준한 상승을 보인 반면, 대체적 업종 종목들이 약세였다.

이번 주(23~27일) KOSPI 예상은 1960~2030p다. 상승 요인으로는 연말 배당을 위한 프로그램 매수의 지속적인 유입이 기대되며 글로벌 증시 부양에 대한 정책 공조 등을 꼽을 수 있다. FED의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 기조는 추후 글로벌 증시 방어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대목이다.

그러나 미국 연말 소비 약화 및 프랑스 테러에 이은 IS의 지속적인 테러압박과 조짐은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연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 압박은 주가의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27일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12월 26일 박싱데이(BOXING DAY)까지 이어지는 미 연말소비시즌이 시작된다.

블랙프라이데이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10월 31일 할로윈데이 소비 결과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NRF 예상치는 69억달러로 2014년 74억달러 및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2년 80억 달러를 모두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 13일 발표된 10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한 93.1을 기록하였으나, 미 10월 소매판매는 0.2%로 예상치를 하회했다. 미 연말 소비에 기대감이 확대되기에는 아직 불충분한 모습이다.

파리테러로 인해 4분기 유럽경기 위축 가능성이 존재하고 미 연말 소비 증가율도 전년 대비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시장에 모멘텀이 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분석된다. FOMC 회의 전까지는 현 수준에서 등락을 염두, 연말로 다가갈수록 배당관련 종목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 자 중

〈NH투자증권 광주WMC센터장〉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아쉬움을 달래 줄 세일이 진행되고 있는 22일 롯데백화점광주점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다.

〈롯데백화점광주점 제공〉

## 美 '블랙프라이데이' 코앞

### 설레는 해외 직구족

미국 최대 세일행사 '블랙프라이데이(현지시각 27일·한국시각 28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해외 직구(직접구매)족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쇼핑 계획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업계는 올해 '블프' 직구 규모가 작년보다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전자제품과 가방류 등을 추천 직구 제품으로 꼽고 있다.

국내 최대 해외배송대행서비스 '몰테일(post.malltail.com)'은 22일 올해 들어 10월까지 자신들이 배송대행한 전체 해외 직구 규모(건수 기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다구나 올해 정부가 해외 직구 장려 차원에서 200달러(배송비 포함) 이하 직구 품목의 관세를 면제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늘리고 100달러 이하 구매 건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였기 때문에, 올해 블프 직구 열기는 더 뜨거워 전망이다. /연합뉴스

## “올 김장 재료 저렴하게 사세요”

### 이마트·신세계백화점 등

### 새우젓·절임배추 할인행사

광주·전남지역의 올 김장비용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만230원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형할인마트 기준이며 전통시장에서는 품목에 따라 더욱 저렴한 가격에 김장 재료를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김장 재료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할인 행사도 겹쳐지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는 22일 “올 해 김장비용은 여름 가뭄과 배추 가격이 비싸 전체적으로 올랐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배추가격 폭등과 고추와 젓갈류 등 양념값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이마트 기준, 배추(3일 1방) 294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0원만 올랐다.

또 고춧가루(1kg) 1만8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5180원 싸고, 소금(5kg)도 8180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20원 저렴하다.

다만 새우젓(1kg)이 지난해보다 6800원 오른 1만5800원에 거래되고 깎마늘(300g)은 지난해 대비 670원 비싼 3450원에 매매되고 있다.

특히 이마트는 22주년 기념행사로 배추 1방을 980원(신한카드결제시 680원·11월18일까지 행사)에 팔고 있다.

기타 채소류와 양념류의 가격이 전년과 비슷해 올 15년 김장비용은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신세계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겨울 김장 축제’를 오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신안 전장포 앞바다에서 5~6월에 잡은 새우를 천일염으로 토포에서 발효시킨 신안 지도·전장포 젓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김장 시즌을 맞아 김장재료 주문판매를 한다.

젓갈은 오젓(1kg) 4만5000원, 육젓(1kg) 6만원, 추젓(1kg) 2만원, 멸치젓(1kg) 5000원이다.

업선된 재료와 숙련된 솜씨로 준비된 절임배추(10kg) 2만5000원, 김치양념(4.5kg) 4만5000원, 김장김치(10kg) 7만원에 예약을 받는다.

농협전남지역본부도 오는 24일까지 농협광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신안군 제철 농·특산품 판매추진 행사를 한다.

배추, 깎마늘, 건고추, 양파, 천일염 김장채소 품목과 시금치, 세발나물, 콜라비, 고사리, 햅쌀 등 대표 농·특산품을 최고 20% 저렴하게 판매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채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민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산) 대산프리모 - 검색

대산프리모가발